

4. 토 론

이정식(사회, 미국 펜실베니아대학 정치학과 교수)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주최측의 말씀이 오후는 종합토론인데 역시 토론이니까 아침에 남은 시간 1시간 30분 동안의 토론을 오후에 계속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제약을 너무 받지 말고 토론을 하도록 하고 질문을 하실 경우에 평양에서 오신 분들께서는 대답을 오후에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그러면 지금 대답을 하셔도 좋고 유보하셨다가 오후에 하셔도 되겠습니다. 사회자로선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의 발표를 듣고 있으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일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과연 통일이 무엇인가, 통일이 되었을 때 그 형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별로 정의를 내리지 않고 우리가 토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 좀 토의가 됐으면 좋겠는데 북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통일이라는 것은 역시 연합제가 성립된 말하자면 '1민족 1국가 2체제'가 통일이고 이남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1민족 1국가 1체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통일이 되었을 때의 형상이라는 것은 남쪽이 가진 거하고 북쪽이 가진 것이 상당히 다른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러한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그러했습니다만, 저 역시 '통일이 언제 됩니까?'하는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때마다 늘 '통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통일입니까'라는 그런 반문을 하곤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토의도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발표에 관련하여 질문하실 분이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이중석 :

세 분 선생님의 발표 아주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병철 선생님하고 권만학 선생님께도 이미 말씀이 나왔고 여러 가지 사적인 담화에선 많이 얘기 나왔지만 한 번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어느 분이 말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만. 고병철 선생님이 고려민주연방제의 전제조건이 이제 시작 과정에 있다고 말씀하셨습

니다. 그런데 권만학 선생님은 고려민주연방제에서 80년 10월에 김주석이 이야기했던 전제조건—즉 미군 철수문제, 내정간섭문제와 관련된—이 여전히 유효하다, 그걸 전제로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가 알기에는 80년대말부터는 그 문제가 약화됐고 최근에 와서는 그 전제조건이 완전히 폐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91년 김주석의 신년사에서 연방제가 외교권과 국방권을 따로따로 가질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이 공식적이진 않았지만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새미 해리슨이라고 북한도 여러 번 다녀온 분의 얘기로는 김용순 비서의 얘기를 빌어서 ‘우리가 이제 꼭 연방을 주장하는 건 아니다’라는 식의 얘기까지 했다고 신문에 실은 것을 봤는데, 우리 남쪽에서 주장해 온 연합방식과 북한의 연방방식이, 연방 초기에 연합방식이 채택될 가능성은 없는건지에 대해서 북측 대표분들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정식 :

다음 김구식 선생님 질문하시죠.

김구식 :

고병철 선생님과 권만학 선생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견해의 접근을 보자면 개념상 일치점을 가질 필요성이 있는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고병철 선생님의 토론에서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과 남북연합과의 문제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방안을 하나의 통일국가로 인정하는 것이고 남북연합이라고 할 때 그것은 통일국가는 아니고 통일국가로 가는 과도적 단계로 남측에서 발표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창립하자 할 때는 그것은 완전한 통일국가를 세우자는 겁니다. 그리고 남북연합은 그 과도적 단계에 있는 형태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고선생의 견해에서 제가 이 발제문을 보고 애매한 게 있기 때문에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만학 선생님의 토론에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조국통일의 3대 원칙, 이미 7·4공동성명에서 확인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의 3대 원칙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 남조선 당국자들의 발언을 보면 민족대단결에 대한 것은 사라지고 대신 민주라는 용어가 등장했는데 여기에 대해 왜 민주를 민족대단결에 대체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하나의 질문으로 제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앞으로 정세전망을 말씀하시면서 중국모델식, 말하자면 개혁적 사회주의에 대해서 북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현재 북의 수령, 당, 대중이 일심 단결된 우리식 사회주의, 우리는 우리식 사회주의라고 부르는데, 이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결부시켜서 고찰해 보신 견해는 어떤 것인가, 이게 한가지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식 :

감사합니다. 그럼 우선 질문 다 받죠. 그래서 종합하죠. 다음 김연각 선생님.

김연각 :

제 질문은 북측 참가자로서 발표하신 박 선생님께 드리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고려연방제안은 6차 당대회에서 제기될 때 그 당시에는 분명히 연방국의 창설을 통일의 최종형태, 완성된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좀 달라진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 점을 좀 분명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발표하신 글에도 김주석 말을 인용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도통일은 후대로 미룬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북측의 고려연방제안도 남측과 마찬가지로 내용은 좀 다른지 모르지만 과도적인 통일한국으로 설정한 것이 아닌가 그런 해석이 가능한데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북한측 문건들을 읽다보면 서로 상반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통일문제 얘기를 할 때, 즉 조국통일, 혹은 북남대화 이런 얘기를 할 때의 얘기하고, 혁명이론, 즉 조선혁명이론하고 관계된 부분의 이론서적들을 보면 서로 좀 다릅니다. 충돌이 됩니다. 조국통일에 관한 이론에서는 혁명에 관한 얘기는 별로 없고 무슨 5대 방침이니 원칙이니 하는 얘기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혁명이론, 예를 들면 반제반봉건 혁명이론—남조선 혁명을 규정하고 계신 것 같은데, 반제반봉건

혁명으로서 남조선 혁명론—하고, 통일 얘기를 할 때 고려연방제안이란 그 후에 나온 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이든, 이 양자와의 관련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궁금한 걸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자면 남조선 혁명론을 아직도 유효한 것으로 북측 내부에는 견지하고 계신 건지 더 나아가서 혁명적 민주기지론—요즘은 그런 얘기 별로 안하시는 것 같은데—은 아직도 총노선으로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포기하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도 아울러 추가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식 :

그 다음 백영철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백영철 :

저는 박동근 선생님과 김경남 선생님께 같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제 김경남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통일의 3대 원칙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3대 원칙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자주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오늘 박동근 실장님께서서는 자주와 민족대단결이 같이 중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북측의 공식적인 입장에서 이 3개 개념간에 상하관계가 설정되는 우선 순위가 있는 것인지, 이것을 배우는 입장에서 여쭙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김일성 주석의 말을 많이 인용하시는데, 그러면 이 3대 원칙과 주체사상과의 연관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의 요지는 이 조국통일의 3대 원칙도 주체사상의 한 부분인가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익 :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 모두 통일을 하자면 민족공동의 이익을 중시해야 한다는 면에서는 다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구체적으로 해석을 할 때 민족공동의 이익을 중시한다고 하면서 왜 통일이라면 제도통일이 되어야만 통일이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제도통일과 민족적 통일이라는 개념을 얘기 할 때는 구별하면서 실제상 내용에서는 같은 개념으로 쓰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 두 개를 분리시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두 계급이 있다는 사실, 또 두 제도가 있다는 사실, 이것을 인정 안하는 것으로 되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현시점에서 역시 흡수 통일로 나간다,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명백히 해야 우리가 현시점에서 현실적인 통일방안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애깁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식 :

역시 통일이라는 개념, 그 자체도 상당한 논의의 대상이 될 것이고 아마 그걸 제대로 풀이하려면 회의가 한번 더 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시다만 토론자들 계속하시고 만약 시간이 모자란 경우에는 오후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학준 선생님.

김학준(단국대 재단이사장) :

예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세분의 논문 발표를 관심있게 잘 들었습니다. 시간 제약상 개별적으로 논평하지 않고 총괄해서 토론하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세 분의 논문 발표를 듣고나서 남북의 평화통일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겠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제의 발표와 토론에서도 그렇게 느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느끼게 된 기본적인 요인은 남과 북이 모두 자신의 통일철학과 통일방안에 대해 갖고 있는 집착이 일방적이면서 동시에 매우 강렬하다는 사실의 확인입니다. 남은 남의 철학과 방안에 따라 통일을 주도하겠다는 것이고 북은 북대로 북의 철학과 방안에 따라 통일을 성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행선에 과연 협상을 통한 점점의 마련이 가능할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둘째 따라서 중요한 것은 통일방안 그 자체라기보다는 협상을 성공시키겠다는 진지한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통일방안이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통일방안은 매우 중요하며, 남과 북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통일방안을 만들어 내는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합니다. 그러나 협상을 성공시켜 평화통일을 실현시키겠다는 진지하면서도 강렬한 의지가 앞서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통일방안이 개발된다고 해도 그것은 안타깝게도 탁상공론으로 끝날

가능성이 큼니다.

셋째, 이 대목에서 저는 91년에 체결되고 92년에 발효된 「남·북 기본합의서」를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이 역사적 문서는 오늘날까지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통일방안에 대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남·북 기본합의서」만 실천해 나아가면 평화통일의 전망은 매우 밝아진다고 확신합니다.

넷째, 현 단계에서 남,북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남,북 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남,북 사이에 쌓여 있는 상호 불신과 적대감을 청산하기 어렵습니다.

다섯째, 결론적으로 말해서, 오늘날 남,북 모두에게 절실히 요청되는 것은 남북관계의 개선이며 정상화입니다. 국제정세도 그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남과 북도 그렇나 방향으로의 전환을 시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개선과 정상화를 주장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분단의 고정화를 옹호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북관계의 개선과 정상화라는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평화통일이라는 궁극적 목표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통일상태라는 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모두는 통일을 원하고 있지만 통일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우선 통일상태를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통일상태라고 하는 것은 제도적인 통일은 이루어져 있지 않으나 하더라도 남과 북이 자유롭게 인적 왕래를 할 수 있고 서신 왕래를 할 수 있고, 전화통화를 할 수 있고 물자라도 자유롭게 오갈 수 있고 그리하여 마침내 한반도에서는 동족 사이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공유하게 된다면 그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제도적 통일에는 도달하지 않을지라도 통일상태에는 도달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통일상태만 조성하는 데 성공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제도적 통일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도달하리라고 봅니다. 그것이 제 토론 내용의 골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식 :

통일상태라는 개념은 앞으로 많은 고찰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홍영 선생님. 멀리서 오셨습니다.

이홍영(미국 버클리대 정치학과 교수) :

저는 오늘 세 분의 발표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보다도 통일문제에 대해, 제가 항상 가지고 있던 인상같은 것을 오늘 발표와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을 하는데 제 생각에 제일 중요한 것은 현실과 이상을 어떻게 조화하는가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세 분의 페이지에도 현실과 이상이, 남북한의 현실과 이상이 항상 엇갈리기 때문에 진전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통일이라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한국사람 누구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만, 문제는 현실에 있는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 말이죠, 그것이 제가 보건대 통일의 방법에 관해 합리적으로 토론하는데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에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느냐,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갈라진 것부터 국제정치나 세계정치에도 관계가 있었고 한반도를 싸고 있는 열강의 이해관계에도 관계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항상 인정을 하는 것이 현실적인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북한의 통일정책을 이야기할 때도 남북한이라는 것이 하나의 추상적인 단위가 아니라 민족적인 차원의 그런, 그러니까 한국민족으로서의 남북한을 고려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50년간 분단돼 오는 사이에서 생긴 여러 가지의 계층이라든가, 계급이라든가, 또는 사회집단의 이해관계가 남쪽과 북쪽간에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도 깊이 고려해야 할 문젠입니다. 또한 국가라는 것은 추상적으로 국가 스스로가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통일정책에 어떻게 반영시키느냐,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야지 통일의 가능성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한민족의 비극은 제 생각으로는 통일문제의 이중성에 있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통일이라는 것은 남북한의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정책적인 문제점만 아니라 민족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지도자들의 정책하고 관련 없이도 통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한국의 통일정책에 대해 모르는 것은 그것이 그 사람들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통일의 이중성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남쪽에서는 흡수통일을 안한다고 그러지만 흡수통일의 역사적인 기회가 있을 때 안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이야기는 똑같이 북쪽에도 적용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을 하는 사람들의 의지와 객관적인 여건은 이제 다를 때가 있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전제조건에서 세 분의 페이지에 대해 말씀드리다면 고병철 씨가 취하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저 역시 같은 의견입니다. 항상 남쪽에서 이상을 이야기할 때 북쪽에서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북쪽에서 이상적인 당위성을 이야기할 때 남쪽에서는 현실을 이야기하니까 그 문제를 서로 조정하는 것이 앞으로 남북대화의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동근 선생님의 페이지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읽었는데, 제가 평소 느끼던 것보다 오늘 강조된 점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남의 페이지 퍼지만 대신 읽겠습니다. 첫 번째, 8페이지에 ‘우리는 통일이 절박하다고 하여 먹고 먹히우는 길을 택할 수 없으며 제도가 다르고 사상의 차이가 있다고 하여 오늘의 분열상태를 기약없이 이끌어 갈 수도 없다.’ 이것은 제가 보건대 여태까지의 통일문제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를 제일 적절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 대신 문제는 제시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신빙성있는 대답을 얼마나 하셨는지가 궁금하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서로 찾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제가 관심있는 점은 같은 페이지에 있어서 ‘다시말 하여 <남북연합>이란 련방제 통일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제도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을 마련하고 그 기회를 엿보기 위한 일종의 함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북조선에서 가지고 있는 제일 큰 관심사를 아주 솔직하게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측에서 그 문제를 깊이 고려해서 그 문제가 제기하는 의미를 한국정부의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읽고 싶은 부분이 10페이지 한 문단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련방제 통일방안은 북과 남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용납하는 기초 우에서 련방국가를 형성할 것을 예견

하고 있고 통일정부도 북과 남이 같은 수의 대표들로 구성할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존을 추구하는 의미로 통일문제를 토론하는 사람들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고려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만학 선생님의 발표에 있어서는, 다른 데서 제시 안한 의견을 두 가지 제시하셨는데 그 하나는 사회주의 국가가 개혁과 개방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대한 것으로 저 역시 그러한 방향으로 남북간의 관계가 개선되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선생님의 페이지에서 ‘통일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제도적 문제에 침묵을 유지하는 것이 차선의 방법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차선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남쪽과 북쪽이 갈라져 있는 이러한 딜레마를 고려 했을 때는, 그것이 바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구체적인 제안을 제가 세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통일문제에 있어서 문제를 문제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통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개념을 정확히 하고 통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서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제일 큰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남북한 통일문제에 있어서, 남쪽과 북쪽 모두 가지고 있는 통일방법을, 항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 측면에서 유리한 입장으로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남북회담을 할 때나 우리 학자가 모여서 토론을 할 때는 그런 제한적인 단계를 넘어서서 항상 상대방의 입장을 알고 이해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해결방법을 찾아가는 데 있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통일이라는 문제는 한국민족이 가지고 있는 원대한 문제이지만, 서로가 최대의 목표를 이야기하기보다는, 남쪽과 북쪽이 서로가 가지고 있는 최소의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식 :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한반도, 한민족 이런 용어가 북쪽에서 오신 분들에게 거부감을 주는 것이 아니겠

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쪽에서 오신 분들은 한국이라고 그러고, 북쪽에서 오신 분들은 조선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남북회담을 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제가 이걸 질문으로 좀 제기하고 싶은데요.

송두율 :

남측, 북측 하겠습니까? 남측, 북측.

이정식 :

그래서 우리가 이런 회의를 할 때 남측, 북측 이런 단어를 좀 많이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도 입버릇이 돼서 그냥 남한, 북한 이렇게 되는데, 북한에서 오신 분들께 거부감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경남 :

저희들이 말씀드리자고 생각했던 것을 지금 이정식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내 ‘북쪽에서 오신 분들이 욕심이 많구나’하고 생각을 하실까봐 참고 있었는데 그것을 대변해서 이제 이정식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저희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거나 또는 개별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할 때는 어디까지나 통일에 집착시키는 견지에서 사고하고 말도 하고 이렇게 해야겠다는 견지에서, 북, 남을 총칭할 때는 ‘우리반도’라든가 그 다음 ‘우리민족’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각각 칭할 때는 이정식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측, 북측 또는 해외측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남한, 북한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거슬리기는 했었습니다.

이정식 :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최성익 선생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최성익 :

감사합니다. 토론들을 들어보니까 다 통일을 하지는 입장에 있고 통일을 하자면 어떻게 통일하는가, 어떤 방법으로 통일하는가 이런 문제

가 많이 제기되는데, 물론 북과 남,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다 제 나름대로의 해석이, 타당한 해석도 있고, 이해가 좀 부족한데서 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방도를 모색하는 이 마당이 아주 필요하고 통일방도를 옳게 모색하자면, 통일방도의 대원칙을 여기서 정하는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승부를 가르는 경기에서는 쌍방이 제각기 이기기 위한 목표와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통일이라는 민족공동의 목표인 통일을 달성하는 데서는 서로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공동의 통일방도를 모색하는 문제가 중요하겠습니다. 공동의 통일방도를 모색하자면 서로 부담없이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서로 공명정대하고 평화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정당성이라고 할 때, 그것은 합리성과 현실성, 공명정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구색이 다 갖추어진 이런 통일방도라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조국통일방도의 대원칙은 아까 박동근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 두 개의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방식이 왜 통일방도의 대원칙이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이 연방제 방식이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를 살리는 그런 통일방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우리 민족은 갈라져 살아도 하나의 민족인 것입니다. 연방제 안은 민족은 하나라는 그런 뜻을 자체 내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원래 미국이 남조선을 강점하지 않았다면 애당초 갈라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우리 민족은 동질성이 강하고 우수한 민족입니다. 민족적 공통성에 비하면 이질성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핏줄과 언어를 기본으로 형성된 민족은 그 누가 바란다고 해서 민족성원을 그만두거나 그 성원이 되는 가변적인 집단이 아닌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 누구도 인위적으로 깨뜨릴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가장 공고한 운명공동체인 것입니다. 민족은 변함없이 존재하고, 민족은 절대적입니다. 반면에 사람들의 이해관계, 사상, 이념을 기본으로 하여 형성된 사회제도는 사상적 이해관계의 변동에 따라 의식적으로 선택하게 되는 가변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두 제도의 차이는 결코 우리 민족이 갈라져 살아야 할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은 누구나 다 통

일을 바랍니다. 여기에 모여서도 다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북의 실정을 보면, 지금 90년대를 4년 3개월을 앞에 두고 정말 모두가 어떻게든 90년대는 통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통일열기로 꼭 들어차 있습니다. 특히 8·15, 조국해방 50돌을 앞두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조국해방 50돌 대축전이 벌어지는데 이걸 대단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남쪽에서도 통일만이 살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5백만 해외동포들도 통일열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불원천리하고 해외에서도 여러 학자들이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란 게 민족의 품에서 태어나 자라나고, 민족의 품에서 죽는 게 인생 행로가 아닙니까. 물론 지금 우리 분열해서 수난을 겪고 있지만 이런 의미에서 자기 민족이 하나라는 긍지, 민족이 통일되어야겠다는 이런 의미에서는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근거는 연방제 방식이 북과 남의 서로 다른 제도와 정부가 있다는 것을 인정, 용납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 다른 제도와 정부가 있다. 50년 동안 갈라져 왔기 때문에, 초기에는 다릅니다만, 50년 동안 갈라져 유지해왔기 때문에 어느 일방도 자기의 제도와 정부를 포기하려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든 담고 해결하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연방제인 것입니다. 연방제를 하게 되면 현재의 기득권을 잃을 우려도 없고, 또 먹고 먹히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도통일을 하려면 선생님들 다 이해하고 계신 것처럼, 결국은 전쟁의 방법, 무력의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결국 민족공멸의 길이기,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연방제안이 주요할 것입니다.

다른 세 번째로서의 근거는 조국통일을 평화적으로 가장 빨리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도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아까 우리 박 선생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조국통일이 더없이 귀중하지만, 우리 민족은 민족의 재난을 가져올 전쟁의 방법은 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하는 방법은 오직 연방제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심사숙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의 연방제 통일방도는 우리 민족뿐 아니라 세계의 광범한 지지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방제 방식

이 바로 우리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에 구체적으로 제기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른 동지들 토론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론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통일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그걸 추려 보면 인적내왕, 물적내왕을 해야 한다. 결국 교류를 해야 한다. 이런 논리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이 있는 속에서 인적내왕, 물적내왕이 현실적으로 순조롭게 될 수 있느냐라는 점에 대해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대화문제도 우리는 철저히 대화하지는 입장이고, 정상회담도, 최고위급 회담도 우리가 먼저 발기하고 추진해 온 것입니다. 다 이것을 해서 통일을 위한 국면을 열자는 건데,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대화가 진행돼서 뭐가 해결되려 하면, 또 방해가 제기되고, 예를 들면 팀스피리트 훈련같은 제도적인 것들이 바로 그 시각에 일어납니다. 93년도에도 방문단 교환이 다 합의가 되었었는데, 바로 그 날짜에 훈련을 하겠다고 발표를 해서, 유산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어느 일방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대결이 있는 속에서 과연 교류, 협력이 실현될 수 있는가. 부분적으로는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상화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적어도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와 함께 협력, 교류문제를 병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말씀 이상입니다.

이정식 :

감사합니다. 저도 오후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교통정리를 하는 입장이라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이화여대에 계시는 임혁백 선생님 말씀하시죠.

임혁백(이화여대 정외과 교수) :

먼저 이 역사적인 회의에 참가를 허락해 주신 주최측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발표문을 듣고 제가 느낀 소감은 제가 한국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남북간의 통일방안에 관해서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학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달리

저는 낙관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남북통일방안에 관한 세 분의 발표가 있었지만, 이 세 분 발표에서 느낀 점이라는 것은, 이 세 분이 남북간의 차이점을 부각시키려고 했지만, 그 문장 자체를 파서는 이상하게도 많은 공통점을 느꼈다는 점입니다.

통일원칙에 관해서 북측은 이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고, 남측은 7·4공동성명에는 합의했지만, 최근에는 자주, 평화, 민주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북측의 오늘이나 어제 김구식 선생의 논문에도 나오듯이 민족대단결의 이 원칙 속에는 민주주의가 수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와 민족대단결이라는 것이 이 두 개념이 서로가 서로를 포용할 수 있는 이런 개념이 아니냐고 봤을 때 그리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통일국가가 뭐냐고 했을 때 남측은 1민족, 1국가, 1제도, 1정부, 그러니까 역시 단일국가, 단방제 국가, 그런데 북측은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그러니까 연방제 국가죠. 이렇게 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남측에서 주장하는 단일국가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그런 목표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그 통일국가라는 것은 일종의 국가연합이거든요. 그런데 이 국가연합, 1민족 2체제라고 할까요. 이런 국가연합인데, 오늘 고병철 선생님의 발표를 듣고 느낀 것은 북한의 연방제라는 것과 남한의 국가연합이라는 것이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더구나 1991년에 김주석이 이 연방제에서 지역적 자치정부에 거의 정권을, 군사권이라든가, 외교권이라든가, 내정권까지 이양한다고 한다면, 국가연합이랑, 연방제라는 개념이 별 차이가 없다, 충분히 수용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권만학 교수가 선결조건, 전제조건이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이상하게도 어제 북측 발표하신 김구식 선생의 논문이나, 오늘 발표하신 박동근 선생님 논문에서 이렇게 선결조건에 대한 큰 문제제기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김구식 선생님께서 보안법에 관한 언급이 약간 있었지만, 그것이 중심으로 남북관계를 가로막는 장애요소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상당히 다행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보안법의 문제 같은 것은 주요하게 남북의 통일 과정을 가로막는 장애 요소라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선결조건, 말하자면 사회 민주화의 문제, 파쇼 정부를 민주정부로 대체한다, 이것은 남한에서 사실상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런 선결조건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미군의 문제, 미군의 철수 문제 같은 것도, 냉전에서 탈냉전 시대로 옮겨가면서, 미군의 역할, 기능, 위치에 대한 어떤 새로운 해석, 새로운 재정립이 나오고 있지 않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의 논문에서도 미군에 대해서 북에서도 새로운 이해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탈냉전시대에 미군이라는 것이 일종의 남북한간의 어떤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평화유지군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이 동아시아 전체의 어떤 안정적인 평화질서를 유지하는 데 평화유지군으로서의 새로운 역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인식을 이 발표문을 통해서만 본다면 북측에서도 상당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선결조건 of 문제도 서서히 해결돼 가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상당히 낙관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렇게 차이점보다 유사점이 많고, 선결조건 of 문제도 거의 해소되어 가는 것 같은데, 왜 통일이 잘 안되느냐, 왜 통일의 과정이 이렇게 진전되지 못하고 중단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결국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통일정책이라든가, 통일에 대한 토론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어떤 실천, 실행, 통일에 관한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거죠. 말하자면 남북한간의 통일논의에 있어서는 소위 레토릭, 즉 수사가 실천의지를 압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정책의 차이가 통일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통일을 하려는 의지 자체가 확실히 드러나지 않은 것 자체가 통일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생각은 통일을 하려고 하면 통일을 지향하는 세력, 이걸 통일연합이라고 부르고, 분단 고착을 지향하는 세력, 이걸 분단고착연합이라고 하면, 이 통일연합이 분단고착연합을 압도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결국 남북통합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과 그 이익의 양이 분단고착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과 그 이익의 양을 압도해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통일연합이 분단

고착연합을 압도하려고 하면 결국 우리는 통일논의를 하는데 있어서 양국의 통일정책을 자꾸 부각시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공통점을 더 부각시키는 것, 통일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을 부각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차이를 부각시키고, 제도적인 논의를 계속하는 것은 통일논의 자체를 계속 정체화시켜서 통일논의를 지체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교류, 무조건적인 대화, 그러니까 정치가 개입되지 않는 어떤 교류의 확대가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만이나 서독같은 경우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대만과 중국간에는 예전에 서로 적대국, 적성국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92년에 이룬 남북기본합의서같은 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대화도 없습니다. 대화는 없지만, 대만은 지금 중국의 가장 중요한 투자국입니다. 중국의 수출시장이고. 연간 수백만 명이 아무 대화도 없지만 서로 왕래하고 있습니다. 통일 이전 서독과 동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엄격한 상대를 불인정하는 적대적 관계가 있었지만 그런 어떤 제도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교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화는 많지만 실천, 교류가 없습니다. 대만은 대화는 없지만, 교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나오냐 하는 것입니다. 교류를 확대해야 하는 겁니다. 대화가, 토론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이제 토론 그만하고 교류를 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먼저 남북교류를 탈정치화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교류의 문제, 인적,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정치적 협상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 교류가 정치적 협상의 장애물이 되어서도 안되고 정치적 문제가 교류에 장애물이 되어서도 안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통일국가에 관한 이 제도적 논의라는 것은 분명히 정치적 협상의 대상입니다. 피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제시하고 싶은 하나의 방법은 통일과정이라든가 통일국가의 형태라는 것에 대한 이러한 남북간의 토론의 과정에서 너무 시시콜콜한, 세부적인, 부분적인 문제까지 그 문제를 규정하고, 개념을 규정하고, 합의에 도달하고, 정의하고 이런 것들을 피하고, 모든 것을 최소한으로 정의하는 것, 기본적인 문제, 최소한으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서 오늘 권만학 교수가 의도적인 침묵이라는 좋은 개념을 발표하셨는데, 저는 여기서 미국 헌법에서 좋은 교훈은 얻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 헌법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미국의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 탈산업사회까지 오면서 그 헌법이 유지되었습니다. 왜 이것이 유지되었느냐, 말하자면 이것이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의 천재성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헌법이 장기간 유지된 것은 세부적인 문제, 어떤 갈등의 소지가 있는 문제들에 대해 의도적으로 침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 헌법이 유연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한 그런 현재적인 창안이란 겁니다. 우리도 여기서 교훈을 얻어서 말하자면 이 통일제도를 논의하는데 있어서, 통일헌법, 통일제도에 관한 모든 것을 여기에 넣어가지고 여기에다가 합의에 도달하려고 하지 말고 최소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정의하고 최소한의 문제에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쉽게 합의에 도달하고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통일논의를 진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식 :

감사합니다. 이제 두 분 남았는데, 백학순 선생님 말씀은 오후로 넘기고, 김관기 선생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으니까 좋은 말씀 들려주실 거라 믿습니다.

김관기(북한 사회과학원 연구사) :

감사합니다. 저는 이미 토의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우선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민족의 이익, 자주성을 옹호하는 것, 이것을 최우선적 주위에 놓고 민족적 이념에 기초하여 민족문제인, 통일문제의 해결에 가장 옳은 길을 밝혀 준 애국애족적인 방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조국통일 문제가 우리나라 민족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핵을 이루는 문제고 또 우리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민족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는 것 자체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이 실현을 위한 방도 역시 자체 성격에 맞게 민족문제, 민족의 자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문제, 이것을 첫 자리에 놓고 여기에 복종시키는 방안일 때 이것이 가장 애국애족적인 방안이라고

봐야할 것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놓고 볼 때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은 바로 이런 민족문제를 첫자리에 놓고 민족의 이념을 전면에 내세우고 전개한 애국애족적인 방안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왜 그런가? 여기에서 제가 몇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그것은 우선 이 방안이 북과 남의 서로 다른 제도 하에서 적용될 수 있는 민족통일국가 방안이라는 것, 다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연방국가의 창립 방도, 그 기능과 임무, 활동원칙, 국호 이게 다 주어져 있는데, 국호에 이르기까지 연방국가의 창설과 관련한 모든 문제들이 민족의 자주적 발전, 민족문제 해결에 맞게 전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방공화국의 법적 지위를 단일민족이라는 이런 공통성에 기초해서 연방을 형성하되 두 개의 국가가 아니라, 같은 계급사회의 연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방정부의 구성원칙, 이것을 볼 때도 민족의 근본이익과 통일문제 자체 성격에 맞게 민족적 이념에 기초해서 기초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 두 번째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에 대해 찾아본 것은 이 창립방안은 우리나라의 통일문제의 거족적 성격, 구체적 현실, 이것을 정확히 반영하고 북과남 두 지역의 이해관계를 가장 공명정대하게, 공정하게 고려하고 있는 통일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북과 남의 현존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통일을 실현하는 이런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두 제도를 인정하고, 사상과 제도, 각이한 이것을 인정한 다음에 세우는 이 연방공화국이 이러한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북과 남의 이해관계를 공정하게 반영하고 있다. 연방국가의 구조와 형태문제, 그 다음 통일정부의 수립과 운영문제, 권한의 분배문제 이 모든 것이 공정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 통일국가의 성격, 국호 이 문제의 규제가 다 공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습니다. 아까 고병철 선생님 토론에서도 제기된 문제로, 북과 남이 동등한 수의 의석 수를 차지하고 여기에 해외동포까지도 포함하자고 할때 이것은 북과 남이 각기 자기 지지하는 해외동포를 동참시키는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의문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3자가 됐다면 다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참가하지 않겠는가, 해외도 자기가 자기

권한을 독자적으로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마당인데 북에서는 누구 오라 남에서는 누구 오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려민주연방공화국에는 이게 다 동등한 자격으로서 참가한다는 것, 이런 걸 볼 때 이게 아주 공정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인민들의 염원에도 전적으로 부합되는 방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누구나 다, 어느 민족이나 할 것 없이 인민들은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우리 북과 남이 현존하는 두 사이에 종전처럼 긴장상태가 조성 되어 있고, 때문에 우리 조선반도에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이런 조건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에 의해서 연방정부가 서고 긴장상태가 다 해소되고 이렇게 되면 평화가 조선반도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평화가 올 것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놓고 보면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인민들의 요구에도 부합된다고 봤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찾아본 것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이 한 나라 안에서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함께 존재할 수 있다는 독창적인 사상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과 남에 현실적으로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 있고, 어느 일방도 서로 양보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현실적인 조건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통일지향적인 방안은 이런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국가를 건설하는 이런 방안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이러한 정당성, 독창성 이런 것으로 해서 내외의 세계 인민들 속에서 지지와 공감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 창립되게 되면 5천년 역사를 가진 우리 단일민족, 단군민족, 7천만 우리 조선민족은 찬란한 민족문화와 자립적 민족경제, 자주적 국방력을 가진 자주독립국가가 될 것이고, 우리 민족은 존엄하고 당당한 민족으로 세계에 앞서 나가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식 :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전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